

經濟戰爭에서 이기는 길

經濟企劃院

- ◇……………編輯者 註：이 글은 公職者의 經濟教育을 위하여 經濟企劃院 經濟教育企劃官室이 作成한 것……………◇
- ◇……………로서 우리 經濟의 現實과 問題點, 對應方向을 알기 쉽게 풀이한 教材입니다. 우리 經濟가 處한……………◇
- ◇……………立場을 바로 알고 現實의 어려움을 克服해 낼 수 있는 姿勢를 가다듬는다는 뜻에서 一讀을 勸誘……………◇
- ◇……………드립니다. ……………◇

銃聲 없는 戰爭

世界經濟는 지난 78·79년의 제2차 石油과동에서 비롯된 不況의 늪에서 4년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先進國이나 後進國을 막론하고 물가상승, 경기침체, 실업증가, 국제수지적자 등 나라마다 그 나름대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다보니 政治的 理念이나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의해 敵對國과 友邦을 구별하기 보다는,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輸出을 많이 하고 경제적 利得을 많이 얻느냐에 급급하게 되었고, 輸入制限을 둘러싼 무역분쟁, 큰 工事を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 高級技術을 훔쳐내기 위한 産業스파이 행위와 같은 다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말하자면 오늘의 世界經濟는 銃소리 없는 經濟戰爭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0年代와 70年代 중반까지만 해도, 싼利子로 외국돈을 빌려 工場을 짓고 싼값에 원자재를 輸入하여 生産해 내기만 하면 쉽게 세계 시장에 輸出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을 잘 이용하여 해마다

輸出을 40%씩 늘려나가면서 10%에 가까운 기록적인 經濟成長을 거둬해 왔으며, 그러는 동안 우리는 너무 자신에 넘쳐 우리 經濟의 앞날에 지나친 기대나 의욕을 갖기도 했다.

80年代의 國際經濟 여건은 이러한 성급한 기대나 의욕을 충족시켜 주기에는 너무나 나빠졌다.

國際金利가 높아져서 외국돈을 꾸어쓰기도 어려워졌고 원자재 가격이 최근 安定되었다고는 하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비싸졌으며 先進各國의 輸入規制도 날로 심해지고 있어서 지난날과 같은 高度成長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世界經濟의 여건이 아무리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렵다고 가만히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經濟의 嚴然한 現實이다. 따라서 經濟戰爭이라고 불리울 만큼 각박해진 작금의 世界經濟 모습과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經濟戰爭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課題라고 하겠다.

고민에 빠진 先進國

지금까지 높은 所得을 올리며 풍요를 누려오던 先進國일수록 더욱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주요 先進國들은 대부분 지난 80·81년에 한 두번씩 마이너스成長을 기록하여 所得이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82년에도 제자리 걸음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成長率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失業者가 증가한다. 先進國들은 요즘은 모두 10% 안팎의 기록적인 失業率로 인한 社會的, 政治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美國의 실업자수는 1,100 만명에 이르러 1930年代의 世界經濟恐慌 이후 최고의 失業率을 기록하고 있으며, 西유럽 국가들에서도 모두 1,300 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 先進國들은 失業保險을 비롯한 社會福祉制度가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社會福祉費用도 결국은 國民의 주머니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生産이 줄고 따라서 稅金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도 줄어드는데 先進國이라고 해서 이들 失業人口를 먹여 살릴 여유가 넉넉할 리가 없다.

세계 제일의 富者나라인 美國이 社會福祉惠擇을 줄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와 같은 실업의 洪水때문에 어느나라의 勞動組合보다도 強力하다던 英國의 勞動組合마저 과거와 같은 강경한 主張을 할 수 없게되어 82년에는 物價上昇率보다 낮은 賃金引上率로 만족하고 있다.

勤勞者들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企業이 망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없을까를 먼저 걱정하게 되고, 會社의 競爭力을 弱화시키는 勞動組合의 파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西獨企業들은 정부로부터의 보호나 지원없이 가혹한 競爭속에서 커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튼튼한 저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유명한 萬年筆會社인 “펠리칸”을 비롯하여 카메라회사인 “롤라이” 등 많은 大企業이 倒産하였으며, 세계적인 電子製品 회사인 “텔레퐁켄”마저 은행관리를 받고 있는 지경이다.

이와 같은 도산사태는 20년 이상 계속된 풍요속에서 경영자와 근로자가 안일한 자세에 빠져 技術革新과 經營合理化를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여기서 企業을 키워 나가는 것도 망하게 하는 것도 바로 會社의 경영자와 근로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理念보다 實利가 판쳐

日本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내자원이 없어서 輸出을 늘리지 않고는 經濟發展이 어려운 나라중 하나이다.

그런 日本의 輸出이 82년 들어서 81년에 비해 8%나 줄어들고 있으며, 日本돈의 對外的 가치가 계속 떨어져 日本商品의 국제가격이 싸지고 있는데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共産國家인 소련도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國營農場制度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增産의욕이 없는 터에 날씨가 나빠서 4년째 흉작이 계속되어 食糧의 $\frac{1}{4}$ 을 美國, 캐나다 등에서 輸入하고 있는 형편이다.

매년 60억 내지 70억달러나 되는 그 輸入代金を 갚기 위해서 소련은 가지고 있던 金까지 팔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國際金값마저 떨어져 더욱 궁지에 몰려 있다.

소련은 풍부한 天然가스에 큰 기대를 걸고 시베리아에서 西유럽까지 가스관을 건설하고 있는데 天然가스를 西유럽에 팔아서 매년 100억달러에 가까운 外貨收入을 올릴것을 計劃하고 있다.

西歐 여러나라들은 이 엄청난 건설사업에서 돈도 벌고 에너지도 공급받을 수 있어 美國의 強力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앞을 다투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政治理念을 초월하여 경제적 利益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先進國 경제의 참모습인 것이다.

石油가격을 올린 產油國들은 어떠한가 79년을 전후하여 原油가격은 배럴당 13달러에서 34달러로 3배 가까이 올랐으나 세계적 不況과 各國의 消費節約 努力으로 原油需要가 급격히 감소하자 생산량도 크게 줄고 실제 거래가격도 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產油國들은 석유수출로 벌어들이는 外

貨收入이 줄어들어 국제수지가 오히려 赤字가 되는가 하면 경제개발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70年代初의 油田발견으로 막대한 石油 판매 수입을 올리면서 70年代 후반에 매년 10%에 가까운 經濟成長을 누리던 멕시코는 石油판매수입만 믿고 끌어쓴 外國빚이 800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런데 82년들어 石油판매수입이 예상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게 되자 外國빚도 제때에 갚지 못하게 되었으며, 物價와 賃금이 다시 뛰고 成長率이 떨어지는 곤경에 빠져 있다.

멕시코 뿐만이 아니다.

폴란드는 1년간 輸出하여 버는 달러를 몽땅 털어넣어도 그해에 갚아야 할 外國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日常生活조차 위협당하고 있으며 中南美의 여러나라들도 매년 輸出해서 버는 달러의 절반 이상을 빚갚는데 써야 할 정도로 많은 外國빚을 안고 허덕인다.

輸出不振속 國際收支개선

世界各國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東南亞地域의 新興 公업국들도 역시 例外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先進國이나 다른 開發途上國 보다는 나은 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臺灣, 홍콩 등은 땅도 좁고 資源도 없지만 開發途上國의 모범생답게 5% 이상의 상당히 높은 經濟成長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인 景氣沈滯와 國際高金利가 계속되고 先進國의 輸入規制가 강화되는 등 악조건이 계속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도 최근에는 輸出이 줄어들고 成長率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輸出增加率이 4%에 그쳐 다른 나라보다 나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輸出이 잘 안되는 것은 국제적 경기침체로 世界貿易量이 거의 늘지 않는데다 우리 商品을 輸入하는 先進國들이 여러가지 方法으로 輸

入을 制限하고 있기 때문이다.

新興工業國들의 輸出品때문에 자기나라 企業이 倒産하고 失業者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國內産業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속에서 4%라도 輸出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努力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어려움도 克服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값진 成果라고 評價할 수도 있다.

輸出이 잘 늘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輸入을 줄였기 때문에 國際收支面에서는 뚜렷한 改善을 이룩하고 있다.

82년의 국제수지 적자는 22~25억달러 정도로 과거 3년의 40~50억달러에 비하면 크게 改善된 것이다.

82년의 輸入이 크게 줄어든 것은 국제 原資材價格이 安定되고 쌀 輸入이 減少된 데에 힘입은 바 크지만, 그동안의 節約努力이 效果를 나타내어 原油나 消費材의 輸入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輸入이 줄어드는 속에서도 經濟成長과 生産增加에 必要한 기체나 원자재의 輸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는 不況때문에 輸入이 저절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우리 輸入構造가 改善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物價安定기반 정착

外國빚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빚낸 돈을 生産의인데 投資하여 所得을 늘리고 늘어난 所得으로 빚을 무난히 갚아 나갈수만 있다면 個人이나 나라나 빚을 얻어 쓰는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벌어들인 外貨의 대부분을 빚갚는데 쓰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外貨수입의 14%정도로 빚을 갚아 나가고 있어 빚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유와 能力이 충분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外國 빚이 너무 많아지는 것은 경제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商品 輸出이나 海外建設 등을 통하여 달러를 벌어들인데 한층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節約으로 輸入을 줄이고 국내 貯蓄을 늘려서 外國돈을 빌리지 않고도 産業資金을 供給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 모두가 계속 努力해 나간다면 86년에는 國際收支 赤字를 없애고 外國빚이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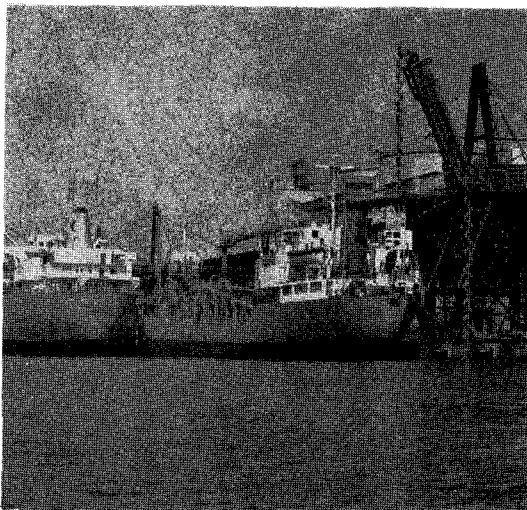
우리가 얻은 成果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해도 物價의 安定이다.

82년의 都賣物價와 消費者物價는 2.4와 4.8%로 크게 安定되었으며 83년에도 都賣 2~2.5%, 消費者 3~4% 水準에서 安定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物價安定을 두고 “不況덕분에 安定된 것이지 우리가 努力한 結果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中南美 일부 國家들은 여전히 年間 100%의 物價上昇으로 고민하고 있는 반면 臺灣, 日本처럼 우리보다 더 安定되어 있는 나라도 있고, 先進國들도 극심한 不況과 失業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物價上昇率이 높은 나라가 많은것을 볼때 똑 같은 狀況이라도 物價安定을 向한 國民의 執念과 努力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 달라짐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經濟가 이룩한 實績을 요약해 볼때 成長이나 輸出增加面에서 다른 어느나라 보다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면서도 국제수지 적자를 크게 줄이고 物價安定기반을 定着시키는 큰 成果를 얻었다고 하겠다.



價格統制는 弊害 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이룩한 成果에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우리 經濟를 둘러싸고 있는 國際經濟의 與件은 그다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先進國의 輸入規制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의 輸出展望 역시 결코 밝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世界經濟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한 지금까지의 努力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다.

모처럼 이룩한 安定成長의 기틀을 굳히기 위해서는 모든 經濟政策手段을, 安定을 다지는 方向으로 運用하고 우리 經濟의 能率을 높이기 위한 制度改善 努力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政府의 制度改善 努力은 市場經濟原理를 기초로 하여 自律競爭을 促進해 나가는 데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다. 우리 經濟의 競爭力은 보호와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치열한 競爭을 통해서 더욱 튼튼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 政府는 主要品目の 價格을 直接 規制하고 品質도 감시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큰 效果를 보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工場의 出庫價格은 감시할 수 있지만 복잡한 流通過程을 모두 감시하는 것은 사실상 不可能하기 때문에 消費者는 웃돈을 주고 사지 않을 수 없는데도 生産者는 생산자대로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경우 流通段階에서 부당한 利得을 얻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生産자의 品質向上 의욕은 떨어지게 된다. 우리는 價格統制보다는 자유로운 競爭이 商品의 質을 높이고 가격을 싸게 하는 效果的인 方法임을 알아야 하겠다.

81년 4월 公正去來法の 실시와 동시에 價格 자유화를 단행한 이후 일부 會社間에는 品質向上이나 原價절감을 통한 價格引下 努力이 한층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競爭을 促進하는 중요한 수단중의 하나는 外國으로 부터의 輸入을 개방하는 것이다.

국제수지도 적자상태이고 다른 나라가 우리 商品의 輸入을 規制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輸入을 開放해 나가는 이유는 外國의 사치품을 많이

輸入해 쓰자는 것이 아니라 輸入品과의 競爭을 통하여 國內産業의 競爭力을 키우자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 우리상품이 外國에 나가서도 競爭에 이길 수가 있고 우리상품에 대한 外國의 輸入規制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物價오름세 심리는 敵

國際競爭에서 이기려면 먼저 국내시장에서 輸入商品을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 輸送費와 關稅를 물고 들어오는 수입상품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輸出을 늘려 나갈 수가 있겠는가.

또, 輸入規制를 오래 계속하게 되면 國內消費者가 비싸게 물건을 사게되어 損害를 입게 되고 企業도 品質向上이나 원가절감을 소홀히 하게 되어 길게 보면 우리 經濟를 弱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사업이 政府의 許可를 必要로 하고 政府가 許可숫자를 制限하여 事業許可만 받아도 큰 利權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결국 자유로운 競爭을 막아서 이미 許可를 받은 사람들이 부당한 利得을 얻게되고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最近 몇년간 政府는 많은 부문에 대해 일정한 施設基準이나 安全基準 등 요건을 갖추고 申告만 하면 누구나 자유로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T/O 制나 許可制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石油類販賣業, 양곡상, 정육점, 관 광여행사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政府가 各種 制度를 고쳐 나가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能率을 높여 安定을 더욱 굳히고 지속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 하자는 것으로서, 國民意識과 行動의 改革이 뒷받침 되어야만 기대한 成果를 거둘 수 있다.

經濟的 意識改革의 첫번째 과제는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物價 오름세 심리를 뿌리뽑는 일이다.

物價가 安定되어야만 우리 商品이 競爭力을 가질 수 있어 輸出도 늘려나갈 수 있다.

또 輸出을 늘려야만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고

成長도 해나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먼저 物價를 安定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確實히 알아야 하겠다.

賃金比重 原價의 절반

物價安定을 이룩하는 데에는 돈을 너무 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賃金の 安定도 큰 몫을 한다. 특히 83년에는 石油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安定될 전망이고, 政府도 돈을 많이 늘리지 않을 計劃이므로 物價는 주로 賃金이나 利子와 같은 요인에 의해 左右될 것으로 보인다.

個別企業의 입장에서 보면 生産原價는 材料費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賃金은 10여% 밖에 되지 않지만 그 材料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賃金을 모두 계산하면 賃金の 比重은 훨씬 커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공장의 材料인 철판값속에는 製鐵所 직공의 賃金이 포함되어 있고, 製鐵工場의 材料인 철광석, 석탄의 값속에는 다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의 賃金이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모두 고려하면 원가중에서 賃금이 차지하는 比重은 절반을 훨씬 넘고 있는 것이다.

또 賃金上昇率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勤勞者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點을 이해해야 한다.

몇년전 美國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에서는 勞動組合의 힘으로 30%의 賃金上을 실현하였으나 그 때문에 美國 자동차 값이 비싸져서 日本車가 더 잘 팔리게 되었다. 그 결과 일부 공장이 문을 닫고 많은 勤勞者가 직장을 잃게 되는 悲劇을 초래하기도 했다.

요즈음 구미 선진국에서는 賃金を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잃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勞使간에 널리 퍼지고 있다.

국내시장을 外國 商品에게 빼앗긴 것은 國民 모두의 책임인 만큼 각자가 賃金を 줄여서라도 그 고통을 분담해서 競爭力을 회복해 나가야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나라경제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무

리한 요구나 기대를 해서 경제전체를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經濟의 能力을 키워나가는 것만이 실질적인 所得增加를 기약할 수 있는 가장 確實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企業과 企業인의 역할

政府에 대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나라살림은 國民의 稅金으로 꾸려가는 것이므로 經濟의 한 부분에 정부지원이 커지게 되면 그 부담은 稅金을 더 거두거나 다른 부분의 지원을 줄여서 메꾸어야만 한다.

政府는 特定부문에 대한 보호와 지원보다는 모든 부문에 그 혜택이 고루 미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각자 자기 利益만을 생각하고 정부에 대해 요구만 하기 보다는 나라 전체의 經濟事情을 이해하고 자제하는 자세가 必要하다.

企業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도 다시 생각해 볼 점이 많다.

企業이란 資本가가 자본을 대고 勤勞者가 勞働을 제공하고 경영자가 이를 잘 관리하여 生産活動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利益을 올려 이를 나누어 갖는 經濟活動의 터전이며 國民所得의 源泉이다.

한때 일부 企業인이 企業의 발전은 뒷전에 두고 개인적인 利益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企業은 망해도 企業인은 산다”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誠實한 企業人까지 국민으로부터 尊敬을 받지 못하는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企業인들의 과감한 개척정신과 努力이 우리 經濟發展에 큰 몫을 담당하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 企業인이 能力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 믿고 존경할 수 있는 社會的 분위기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한 旅行者가 스위스 時計 工場을 방문하여 社長과 勤勞者에게 企業의 俸給引上率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고 질문을 던져 보았더니 똑같이 “企業의 負擔能力에 맞추어야 한다.”

고 대답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企業家와 勤勞者가 힘을 합쳐 企業의 收益을 늘리고 기업을 키우면 기업이 성장한 만큼 자기에게도 혜택이 돌아 온다는 것을 믿고 서로 協力하는 건전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

企業이 벌어들인 收益을 나누어 가질 때 勤勞者, 經營者, 投資家가 자기 몫을 늘리려고 다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 때문에 企業活動이 중단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스위스는 勤勞者와 기업가 대표간에 “産業平和”라고 하는 약속을 한 이후 勤勞者가 파업을 한다든가 기업가가 공장을 폐쇄하여 국민경제 전체를 위축시키는 일이 거의 없어져 알찬 經濟를 운영하고 있다.

成長의 길은 技術·技能 向上

남이 못만드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能力을 技術이라 하고, 남보다 물건을 잘 만들어 내는 能力을 技能이라고 할 때, 이런 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및 人力開發의 努力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技術과 技能의 向上이야말로 所得을 높이는 가장 確實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政府도 特定産業에 대한 지원은 없애 나가면서도 技術開發과 人力開發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技術이나 技能이 있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민의 病이라는 주장도 있고, 성의를 다해도 응분의 代價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불평도 있다.

그러나 서로 남을 탓하기 전에 각자가 할 일을 다하는 자세가 必要하다. 종업원이 技術과 技能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면 品質도 좋아지고 원가도 줄어들어 生産品이 잘 팔리고 會社의 利益도 늘어난다. 企業家は 從業員이 기여한 바에 대한 충분한 補償을 나누어 주어 企業의 活力을 유지하고, 어려운 때에는 서로 참고 自制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輸入自由化와 海外旅行의 점진적 개방, 校服의 단계적 自律化와 같은 自由化施策이 취해진 이후 外製商品이나 비싼 옷을 자랑 삼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 땀흘려 몇몇하게 벌지 않은 사람일수록 돈을 값지게 쓸 줄 모르고 사치와 허영에 흐르게 마련이다.

이런 걸치장을 부러워 하거나 흉내 내려 해서 는 안된다.

우리 商品이 全世界를 누비고 있는 오늘날, 合理的인 判斷이 아니라 허영심 때문에 우리 국민이 우리 商品을 外面한다면 우리 企業은 무엇을 바탕으로 커 나갈 수 있겠는가.

商品의 가격과 品質을 잘 비교해 보고 값지게 돈을 쓰는 합리적인 소비자야 말로 生産者의 品質向上과 原價節減 努力을 채찍질하는 國民經濟發展의 原動力인 것이다.

企業도 가격자유화 조치를 惡用하여 폭리를 취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논안의 利益에 눈이 어두워 商品의 質을 속이거나 가격자유화를 틈타서 값이나 올려 받으려고 한다면 고객을 잃게 되어 스스로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것은 물론 나라 經濟의 發展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價格을 올려 利益을 늘릴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은 누군가 그만큼 더 지불하는 사람이 損害를 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어서 國民經濟 전체로는 얻는 것이 없다.

生産性 向上을 통한 原價節減만이 아무에게도 損害를 입히지 않고 利益을 늘려 국민경제 전체를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企業의 成長과 利益增加를 기약할 수 있는 方法임을 깨달아 技術開發과 技能向上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第 2 經濟跳躍을 向하여

住宅이나 土地와 같은 不動産은 生活의 터전이나 生産活動의 수단으로 생각해야하며 投機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不動産 投機는 社會正義에 어긋나는 所得을 發

생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住居生活를 不安定하게 하고, 生産活動의 費用을 높여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經濟에 미치는 害毒이 매우 크다.

따라서 政府는 과열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감시를 계속하고 있다.

先進國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리해서 住宅을 사기보다는 賃貸住宅을 이용하면서 生活의 여유를 즐긴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한집을 빌려서 10 년이고 20 년이고 원하는대로 살 수 있도록 賃貸住宅制度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앞으로 이러한 方向으로 住宅政策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의 사고방식 轉換이 뒤따라야만 成功할 수 있다.

한 나라의 經濟는 經濟學者나 經濟政策 當局者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個個人的 매일 매일의 生活속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經濟의 構成員 한사람 한사람이 우리가 處한 경제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經濟環境의 變化에 신속하게 對應하여 實踐으로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經濟政策은 기대한 成果를 올릴 수가 없다.

世界經濟는 아직도 不況의 늪에 빠져 있고 올해에도 크게 나아질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經濟體質改善 努力을 더욱 強化하여 安定基調를 再確認 하는 한편 그동안의 安定과 體質改善에 의해 회복된 購買力 및 國際競爭力을 바탕으로 國內需要와 輸出의 균형있는 增加를 도모하는 것을 83년 經濟運用的 基本方向으로 삼고 있다.

올해에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이어 7%내외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동시에 物價를 4% 이내로 安定시키고 國際收支 赤字도 20 억달러 이내에서 抑制함으로써 安定成長의 새로운 時代를 열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국민 個個人的 自覺과 努力으로 類例없는 經濟難局을 短時日에 克服한 經驗을 통해 우리의 力量에 대한 確信을 얻었다.

이러한 確信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努力을 계속해 나가면 우리 經濟는 다시 한번 第2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